

한국 복식과 외래 문화와의 연관성

소황옥(중앙대학교, 한국)

I. 서론

복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종교,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하는 시대의 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시적으로 나타나므로, 복식 문화의 흐름은 그 나라와 민족의 시대적 환경 요인과 민족 특성으로 형성되었던 각 시대의 생활 양식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접촉되었던 주변 국가와 여러 타 민족의 다양한 외래문화와의 수용과 융화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 고유 복식의 유형 변화는 자연스러운 복식 문화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외래 문화의 수용과 융화의 과정에서 한국 복식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생활 문화의 표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민족적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복식은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북방 스키타이 기마 유목 민족 복식에 그 원류를 두며, 여기에 남방계의 치마와 의례용과 방한용으로서의 장포를 기본 복식으로 허리에 대를 매고, 머리에는 관모, 신발로는 남방계의 리(履)와 북방계의 화(靴)를 병용하였다. 여기에서 한국 복식의 원형은 남방과 북방계 민족의 복식을 함께 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절적인 기후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고대의 고분 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신분에 따라 달리 입혀진 의복의 유형이나 문양 등에 차이는 뚜렷한 계급사회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신분적 역할과 지위에 따라 복식의 의차(衣次)를 달리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복식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낼 수 있는 복식의 기능은 한국의 복식 문화의 특성인 이중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로써 근거를 이루고 있다. 신분에 따라 달리 착용되어 귀족과 서민을 나누었던 복식 착용의 이중성은 당으로부터 사여 받은 중국제 관복을 신라의 관복제로 수용함으로써 외래의 중국복제와 국속의 고유복 착용이라는 또 하나의 이중적 복식 구조를 이루어 이러한 중국복제의 착용은 복식제도로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복이나 백관복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 국속의 고유복식은 시대를 달리하며 관리들의 평상복이나 서민복으로 한복의 기본 유형을 유지하며 꾸준히 착용되어 한민족의 자랑할만한 문화 유산의 하나인 한복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현재에도 전통한복은 민속복으로써 한복용 직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섬유업체와 한복 전문 시장을 배경으로, 꾸준히 주문 생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인의 일상복이 되어버린 서양복과 함께 의례복 또는 특수복으로 착용되어 현대의 한국의 복식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민족의 특유한 기질 속에 나타났던 복식 문화의 이중 구조 속에서 외국 문화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외래 복식이 한국 복식에 어떠한 형태로 유입되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II. 한국복식과 외래 문화

1. 한국복식과 외래 문화의 연관성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의 중심인 중국과 매우 밀접한 문화적 관련성을 유지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 발전 시켜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주변의 여러 문화권들이 동양의 제 문화권 사이에 전개된 동서 교섭 및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과 영향을 고려 할 경우 이들 문화권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¹⁾

아시아는 크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문화권, 건조 지대의 오아시스 농경 생활과 유목생활을 바탕으로 전개된 서(중앙)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북아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전개된 수렵민의 삶을 들 수 있다. 세계 문화 발상지의 하나이자 철기와 농경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선사시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역사 시대에 있어서도 이슬람 이전이나 이슬람 이후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권이었으며, 중앙아시아는 서아시아와 더불어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 및 유목생활의 전개는 캐러밴(Caravan)이라 부르는 대상 무역(隊商貿易)을 통한 무역 루트 즉 실크로드의 사적 전개 과정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단순히 동서를 잇는 문화의 가교가 아니라 유목민과 농경민의 양세계를 이으며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문명의 십자로를 형성하면서 대상 무역을 통한 무수한 인적 교류와 물질 교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문화의 전파와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근세이전까지는 뛰어난 기마술(騎馬術)을 지닌 기마군단 중심의 중앙 유라시아 기마 유목민족의 동향이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 문화권은 인도의 힌두스탄과 같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와 더불어, 인도의 남부 해안 지대 및 동남 아시아의 여러 섬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해상무역을 통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과 유럽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역할을 하였으며, 북아시아의 시베리아 모피는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에 의하여 지중해 세계에 연결되었으며, 몽골 유목민의 교역을 통하여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는 최고 사치품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시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문화권들이 병존하였던 다원성의 다양한 문화가 발흥 성쇠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로 형성 발전 시켜 왔으며, 이러한 제문화권의 문화적 상호 교섭 관계는 우리나라의 복식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화 환경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복식문화는 북방 기마 민족의 복식 문화권이었던 스키타이계 복식에 그 원류를 두고 있어, 그 기본형(그림1참조)은 이부양식(二部樣式)으로 저고리와 바지(襦, 袴) 또는 저고리와 치마(襦, 裳)를 입고, 대(帶)를 하였으며 관모(冠帽)를 쓰고, 화(靴) 또는 리(履)를 신었다. 여기에 방한용과 의례용으로 포(袍)를 외의(外衣)로써 착용하였으며, 의복의 깃과 소매, 도련 등에 선(褸)을 둘렀다.

한국 복식은 의복 유형의 특징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프탄형으로써 헤르시아의 듀베, 타지크의 빠란자, 일본의 기모노 등과 같다.

또한 고대 한민족에게서 두드러졌던 조우장식의 관모는 조류 숭배의 샤먼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습은 현재에도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남부 소수 민족 복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렵 생활을 많이 하였던 북방 유목 민족들의 일반적인 관모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식 자료로는 돈황 벽화나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로써 여기에는 조우관을 쓰고 있는 고대 한국인의 모습이 그려있으며, 누란에

1) 민병훈, 실크로드를 통한 역사적 문화 교류 -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소나무, 2001, pp.25-40

서 출토된 미라도 깃털을 꽂은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2,3참조>

한국 복식사에서 외래 복식 문화의 직접적인 수용은 신라 진덕왕 2년(648)²⁾ 김춘추가 당으로부터 중국 관복을 사여 받아 온 이후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태종 무열왕 때에는 중국의 의관과 아홀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문무왕 4년(664)³⁾에는 부인도 중국의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신라의 귀족 복식이 중국식 복장으로 변하였으며, 서민들의 고유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 복식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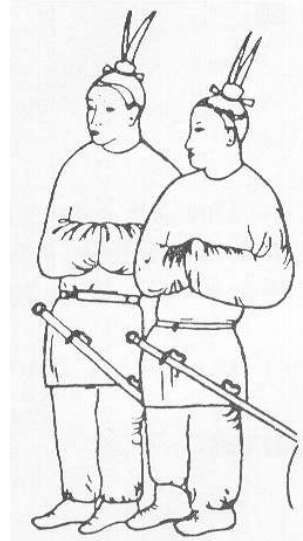


그림 2. 아프리카시암 벽화 신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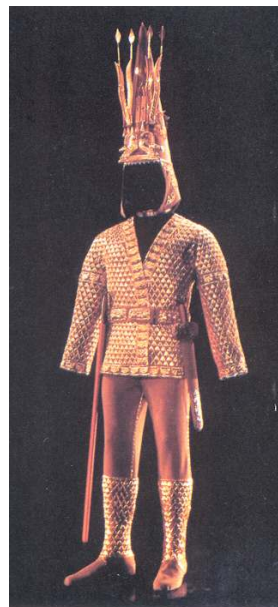


그림 3. 이석 고분의
황금 인간



그림 4. 누란의 금포(錦袍)

2)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2年

3)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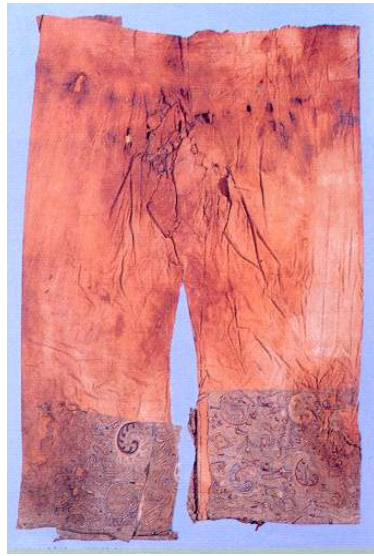


그림 5. 니아에서 출토된 바지



그림 6. 백제국사

2. 한·몽 복식의 비교⁴⁾

우리나라와 몽고의 직접적인 문화 접촉은 원조의 중국 통일 이후 100여년간의 몽고 직속령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고족을 포함한 초원지대의 유목민족들과 그 주변에 위치한 정착민족들과의 문화 교류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몽고족이 고구려 문화권에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어 몽골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상호 접촉은 보다 심화되어 있으며, 특히 복식의 유형은 그 원류를 함께한다.

한국과 몽골 복식의 기본형이 전개형으로 그 원류가 같다 하더라도 몽고는 원대에 이르러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많은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이 이루어져 여러 민족에게 몽고의 복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타민족의 문화를 수용 동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전통적 몽고 복식의 변형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다.

여러 종족 중에서 몽고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하르카(khalkha)족의 남녀의 복은 소매가 길고 착수이며, 기혼녀는 외출할 때 족두리 모양의 장식을 한다. 각 부족들의 의복은 옷의 형태와 장식품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긴소매의 착수형인 袍로써 선(褙)이 가장자리에 둘러있다. 특히 여성들은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우리나라의 도투락댕기와 같이 댕기 장식을 앞으로 늘어뜨리며, 남녀가 조선시대에 관복에 착용하였던 형태의 장화(長靴)를 공용으로 한다.

몽고의 고려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거의 100년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는 공물로써 금·은·곡물·인삼·말 등은 물론 군량·군사·처녀들이 원나라로 바쳐졌으며, 복식류로는 수달피·호표피 등의 짐승 가죽류와 저마, 세마포, 비단 등의 옷감이 건너갔다. 몽고로부터는 주로 의류와 옷의 장식품 등이 사여 되었고 세자때 원으로부터 개체 변발한 모습으로 돌아온 충렬왕이 원의 노국공주와 혼인함을 계기로 궁중으로부터 상류사회에 이르기까지 몽고풍의 복식은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식용 복식인 원삼, 족두리, 장식용 댕기 등이 수용되었고 여인의 연지 사용은 일반인들에게 수용되어 오늘날의 혼인 습속까

4) 소황옥, 한·몽 복식문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회지 22호, 2002

지 이어졌다.

한편 몽골에 조공녀로 보내졌던 고려의 처녀들에 의하여 고려의 풍속이나 예법 등이 상류사회에 전해졌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여인들과 관련된 장식품과 재봉용구로써는 염낭주머니, 인두, 가위 등이 있으며 특히 그들이 속해있던 집안이나 계층의 여인들에게 고려 여인들의 몸가짐은 색다른 것이었으므로 고려양(高麗樣)이란 이름의 앓는 자세가 널리 유행되었다.

인류 문명의 교류를 나타내고 있는 과거의 세계사는 강한자들의 정복과 지배라는 지극히 단순한 힘의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족간의 충돌은 이질적 문화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혼합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문화 양상을 만들어 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사에 대한 연구 방법을 동양이나 서양 중심의 주관적 가치관에 의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과 새로운 문화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풀어 간다면 인류 문명의 교류를 보다 폭 넓은 시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질손 :몽골의 궁정의식



그림 8. 고려복 : 철릭 입은 모습



그림 9. 선(褙) : 삭친部族 여성동복



그림 10. 선(褙) : 무용총 시녀



그림 11. 앞댕기
:갈카족 여성盛裝



그림 12. 앞댕기, 연지



그림 13. 발양(髮樣)
:갈카족 여성용 盛裝



그림 14. 발양(髮樣)
: 떠구지

Ⅲ. 한국복식의 이중구조

1. 한국 복식의 특성

전통문화의 계승은 과거의 문화 유산을 그대로 단순히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창조의 과정으로 설새 없이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사고의 눈을 통하여 새롭고 발전된 형태로의 변화를 거듭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문화의 변화와 형성의 과정에서 복식 문화의 흐름은 그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물론 이민족들과 외교적 접촉에서 비롯되어진 외래 문화와의 수용과 이를 융화하여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켜 발전 시켜 나가는 한 민족의 기질적 특성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한국복식은 역사적으로 주변국 또는 주변국과 연관되어진 이민족과의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고유복식의 유형이 변화되었으며 궁중의 의례복으로 중국복제를 착용하는 등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가의 정치 외교적인 여건으로 받아들인 중국관복제의 수용은 한 민족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 관복제도의 기본이 되었던 의례복으로써의 외래복 착용과 왕 이하 일반 서민들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고유 국속복의 착용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복식 착용이라는 한국 특유의 복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2. 관복제도의 수용

중국은 주대(周代 BC10C~8C)에 관복제도를 완비하여 면복(冕服)을 착용하였으며, <주례(周禮)>에는 제사와 대례 시에 제왕과 백관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예식의 길흉 등 내용에 따라 다른 예복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또 예복의 기준이 엄격하여 의전의 성격, 계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장식과 의복재료를 사용하였는데, 공자가 후에 "服周之冕(복식은 주대의 면복)"이라 한 이래 후대에는 주대의 면복을 기준으로 의복제도를 삼게 되었다.

한대(漢代)에는 무제(武帝)의 서역정벌에 의해 본래 사막지역에서 입던 서역의 복식이 중국에 들어와서 풍토에 맞게 변하여 당송시대(唐宋時代)에는 단령(團領)이 상복(常服)으로 습용되었다. 단령포는 이후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고유복식 위에 관복으로 착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남방계열의 상의하상형의 복식을 착용하여 기원 3세기까지만 해도 등걸이형의 관두의(貫頭衣)와 짧은 치마형의 횡폭의(橫幅衣)를 입었다. 4,5세기에 이르러 전후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기마 민족의 복식과 흡사한 복식을 입게되는데, 출토되는 하니와(埴輪:식물-무덤주위에 많이 세워졌던 일종의 흙인형)와 다카마쓰즈카(高松塚-고송총)벽화 의복을 통해 우리나라 민족고유복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 건너가 지배층이 되고 문화를 전파했다는 근거가 확실해진다. 이후 다시 7, 8 세기에 중국의 의복제도를 도입하여 단령(團領-둥근 깃의 옷)을 착용하고 차차 일본의 풍토에 맞추어 새로운 복식문화를 발전시켰다.

우리 복식은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 중엽 당(唐)의 관복(官服)인 단령을 지배 계급의 표의로 채용하게 되고, 고려 초기에는 송의 복식, 고려 말기에는 원의 복식, 조선 전기에는 명의 복식을 왕족 및 지배계층에서 의례복으로 착용하는 등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복식을 수용하게 된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송과 원, 명의 복식제도를 사여관복 제도 등을 통해 받아들인 우리 복식은 그 이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특히, 궁중복식과 관복제도에서는 중국복식의 영향이 뚜렷하다. 왕과 왕비의 면복제도와 적의제도, 백관의 상복으로 입혀지던 단령포의 흥배부착이나 패어(佩魚) 착용, 복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흥배란 문무백관의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表章)으로,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각각 문양이 달랐다. 흥배는 본래 당나라 측천무후 당시 문무관원들에게 품계에 따라 사자, 기린, 호랑이, 표범, 독수리 등의 수가 놓여진 포를 하사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이 명대에 이르러 부착하는 흥배의 형태로 정착되어 각각의 품계를 상징하는 문양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다. 명대에는 문관은 조류를, 무관은 지상동물을 수놓아서 1품부터 9품까지 각각 문관은 학, 금계, 공작, 기러기, 백한, 원앙 등과 무관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해마 등을 수놓았다. 이러한 흥배제도는 청대에도 이어져서 문관은 학과 공작, 기러기, 백한, 원앙 등을, 무관은 기린, 사자, 표범, 곰, 해마 등을 흥배에 수놓았다.

이러한 흥배제도는 조선왕조에서 처음 세종 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영의정 황희(黃喜)가 검소한 기풍에 위배된다 하여 반대한 일이 있으며, 그 후 단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문양(文樣)은 대군(大君)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 일종의 神獸), 문신 1품은 공작, 2품은 운학(雲鶴), 3품은 백한(뿔과 비슷한 새)을 수놓고, 무신 1·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 대사헌(大司憲)은 해태(일종의 神獸)로 정하여 3품 당상관 이상만 해태 흥배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후 연산군 대에 다시 흥배에 대한 논의가 있어 당하(堂下) 9품까지 흥배를 붙이도록 하였고, 사슴·멧돼지·거위·기러기 등의 문양을 추가하여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에는 이를 간략화하여 문신 당상관은 운학 흥배, 당하관은 백한 흥배로 통일, 고종 때까지 시행하였다. 이것을 1871년(고종 8)에 문신 당상관은 쌍학(雙鶴), 당하관은 단학(單鶴), 무신 당상관은 쌍호(雙虎), 당하는 단호(單虎)로 정하여 사용하였다.

3. 기본 복식의 변화

1) 저고리

상대부터 남녀가 공통으로 착용하였는데, 초기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저고리의 기본 형태는 곧은 깃 교임으로 원설 위로 여미는 좌임이며,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왔다. 깃·설·도련·소매 끝에 선(襷)이 둘러져 있으며, 대(帶)로 여미었다. 통구·평야지역의 벽화에는 통수·광수와 좌·우임의 저고리 형태가 같이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는 저고리가 길이가 길어졌으며 동정이 좁고 띠가 없으며 옆트임이 조금 생겼다. 조선시대는 옷 길이와 옷깃의

변화가 조금씩 생겼으며 깃의 형태, 옷의 구성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그림19,20,21참조)
그림19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모두 착용했으며, 깃을 제외한 길·길이·무·트임이 있는

<표 1> 왕의 제복 비교



	중 국	조 선
면류관	십이류면	구류면
근복	십이장복 장문- 산, 용, 화충(華蟲), 화(火), 종이(宗彝-일종의 제기 祭器), 조(藻 수초), 분미(分米 쌀), 보(黼 도끼), 불(黻), 일(日), 월(月), 성신(星辰)	구장복 장문-산, 용, 화충(華蟲), 화(火), 종이(宗彝-일종의 제기 祭器), 조(藻 수초), 분미(分米 쌀), 보(黼 도끼), 불(黻)
그림	 진대(晋代) 황제 면복	 조선말 황제 면복 고종 황제 즉위: 십이류면, 십이장복



그림 17. 명대 관리



그림 18. 명 문관 흉배



그림 19. 조선쌍학흉배



그림 20. 조선 상복

목판깃 저고리이다. <그림20>은 칼깃 저고리로 조선 중기부터 속저고리로 착용되었으며 무가 없이 곡선화된 사선의 옆선에 트임이 있다. 당코깃 저고리인 <그림21>은 조선 중기 이후 여자들이 착용한 겹저고리로 사선의 길에 사선 소매와 셔스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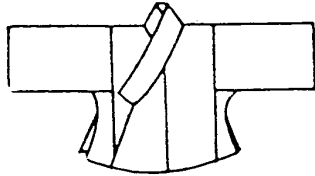


그림 19. 목판깃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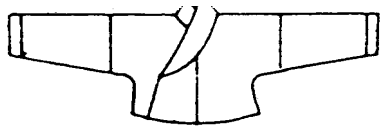


그림 20. 칼깃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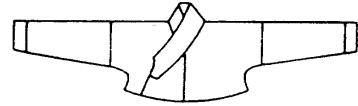


그림 23. 당코깃 저고리

2) 포(袍)

포(袍)는 예의와 방한의 목적으로 바지와 저고리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서 철릭·직령포·창의·도포 등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소매의 모양, 깃 모양 등의 변화가 있었다.<그림22참조>

철릭은 고려말 이래로 조선에까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어진 포(袍)로써 일반적인 국유포의 형태와는 달리 저고리 부분과 치마의 상하가 연의된 의복이다. 하상(下裳)에 주름을 더하여 말 탈 때나 사냥할 때 등 활동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만든 옷이며 몽고 복식인 질손의 유형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한국 복식은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북방 스키타이 기마 유목 민족 복식에 그 원류를 두며, 여기에 남방계의 치마와 의례용과 방한용으로서의 장포(長袍)를 기본 복식으로 허리에는 대(帶)를 매고, 머리에는 관모(冠帽), 신발로는 남방계의 리(履)나 북방계의 화(靴)를 신었다. 여기에서 한국 복식의 원형은 남방과 북방계 민족의 복식을 함께 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절적인 기후의 요인에 기인하고, 또한 신분적 역할과 지위에 따라 복식의 의차(衣次)를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복식의 원형은 주변복식과의 부단한 교류를 통해 변화 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민족 복식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주변국 혹은 주변국을 통한 이민족문화와의 교류는 한국복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그 흔적은 독특한 한국 복식 문화의 형성과 변천과정, 특징 등에서 북방 기마 민족 복식을 원형으로 하는 한국 복식이 외래문화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특징을 갖으며 변화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복식 문화의 특징인 지리적·자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북방 복식적 요소와 남방 복식적 요소가 혼재된 계절, 계급, 외래복과 고유 국속복 등의 이중 구조이다. 특히, 외교와 의례적인 복식으로 착용되었던 면복이나 단령포, 조복, 제복 등의 관복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착용하였지만, 평상시에는 왕족이나 서민들 모두가 우리 고유의 복식을 착용하여 유지해 왔다는 궁중 복식과 서민 복식의 이중구조는 이민족문화의 수용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우리 민족만의 특유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문화의 영향권에서 내외적으로 많은 제제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그들의 복식과는 전혀 다른 한민족만의 복식제도를 유지해온 것은 이민족 지배에 의하여 한족(漢族)의 고유복식을 상실하고 만족(滿族)의 복식을 중국 전통 복식으로 입고 있는 중국복식과 비교할 때 우리 민족의 이민족 문화에 대한 수용과 융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도입과 답습으로 차츰 뿌리를 잃어가고 문화적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옷의 의미와 상징은 더욱 크다 할 수 있으며, 외래문화와 우리 문화의 상호 연관과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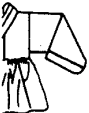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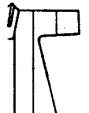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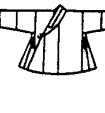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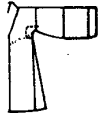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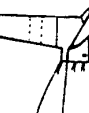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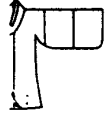






포의종류	철릭	작령포	소창의	대창의·액주음포	중치막	도포
1400년대	 단철릭(악학계법)					
1540년대	 순천김씨 철릭					
1580년대		 동래정씨 직령포				
1590년대	 장흥임씨 철릭	 전 박장군 직령포	 전 박장군 소창의	 이연옹 액주음포		 전 박장군 도포
1596년대	 김덕령 철릭	 김덕령 직령포				
1618년대	 김위 철릭	 광해군 직령포	 김위 소창의		 홍국가 중치막	 홍국가 도포
1704년대	 김덕원 철릭	 김덕원 직령포	 김덕원 소창의	 홍건중 대창의	 홍건중 중치막	
1840년대	 홍완군 철릭				 김덕원 중치막	
1900년대	 국말 철릭	 국말 직령포				 국말 도포

그림 24. 포(袍)의 변천

<표2.> 주요 한·중 복식 제도의 비교 연대표

복식사	한국	연대	중국	복식사
백의(白衣)와 호복(胡服) 착용-유, 고, 포, 상, 변형관모, 대, 화 등 북방 복식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 청동기시대 고조선 민무늬토기문화 古朝鮮 삼한 초기철기시대	BC 10000	신석기시대 양소문화, 용산문화	주례(周禮) - 면복(冕服)제도 심의(深衣) 착용 조 무령왕 (BC3C) - 호복(胡服) 도입 진시황-포(袍), 심의제도 漢-포를 예복화 오행색근거 복색제 황제-황색착용 東漢-제사복식, 조례복식제 제정 북위(北緯) 효문제(孝文帝)의 한화정책(漢化政策) 漢魏服飾 착용 명령(494년) 隨(611년)-복색금제 당 고조 - 황색착용 금령 636년, 674년 - 복색, 패색 규정 송-직각복두, 방심곡령, 패어(佩魚)제도 宋史 輿服志-복제개혁-옛제도 회복강조 元-冬服11篇, 下裝15等, 후에 면복, 조복 등 한족복식채용 명-건국직후 한족제도회복, 관복제도 조정, 명태조-당대복식 제도로 개혁 조직 청-滿族 복식 유지, 한족복식금제, 한인 복제개혁
		6000	商	
		1000	西周	
		900	770	
		800	春秋時代 東周	
		700	475 戰國時代	
		600	221 秦	
		500	206 西漢	
		400	25 東漢	
		300	200	
각국 관직, 계급에 따른 복식금제 백제-품계별 관복제도 신라 진덕여왕-당에 왕과 조신의 장복을 청함	BC 57 신라 BC 37 고구려 BC 18 백제 AD 42 가야	AD 0	220 三國	
		100	265 西晉	
		200	317 東晉	
		300	420 南北朝	
		400	581	
		500	618 隨	
		600	668 통일신라	
		700	699 발해	
		800	935 高麗	
		900	907 五代	
문무왕-당(唐)관복제도 본격 도입, 부녀자들까지 중국복식을 따름 흥덕왕 복식금제 면복착용 등 송제(宋制) 도입 - 송(宋)의 공식 승인(17대 인종) 원 복식제 도입 공민왕-명(明)에 청사관복	668 통일신라 699 발해 935 1392	1000	960 遼 966 北宋	
		1100	1115 金	
		1200	1127 南宋	
		1300	1206 元 1279	
		1400	1368 明	
		1500	1662 清	
		1600	1616 清	
		1700	1616 清	
		1800	1897	
		1900	中國	
조선 초기(성종)-국조오례의 복식규정, 수차례의 복색금제 및 영조 체계금지령	조선 초기(성종)-국조오례의 복식규정, 수차례의 복색금제 및 영조 체계금지령	1897	1897	
		1900	中國	